

목어

연꽃사고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 서울인 연경(燕京)에 가 있을 때 인연을 맺은 여인이 있었다. 다시 고려로 돌아오게 되어 헤어질 무렵 충선왕은 이별의 정표로 연꽃 한 송이를 그녀에게 주었다.



이별의 설움에 울던 그녀는 연꽃을 받은 심경을 시로 읊었다. "처음엔 붉디붉다가도 꺾인지 며칠 안되어 사람 따라 시드네." 애달픈 심정을 노래하게 한 그 이별의 순간에 충선왕은 왜 연꽃을 선물했을까?

주렴계(周廉溪)의 애련설(愛蓮說)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국화는 숨은 이(者)며, 모란은 부귀한 이(富貴者), 연꽃은 군자(君子)이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물결지 않고, 속은 비었으며 겉은 곧으며, 덩굴지거나 가지치기 않고, 깨끗하게 씻어도 오염하지 않으며, 꽃피듯 심어져 떨어질수록 향기롭고 좋은 눈빛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지고 놀만큼 입신여길 수 없다.

나라를 빼앗긴 충선왕이 그 와중에 사권 여인과 헤어질 때의 마음을 요즘의 정리에서 읽을 때 눈에 선하게 박히는 것이 바로 '덩굴지거나 가지치기 않는다(蔓不枝)'는 내용이다.

덩굴진다는 것은 담쟁이나 나팔꽃, 덩굴장미 등처럼 취미나 이해가 통하는 자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것을 말하며, 그런 사람들끼리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패거리사라고 한다. 가지친다는 것은 누구와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나 홀로 똑똑이라는 말이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 버리는 것은 나홀로사라고 할 수 있다.

나라의 침입때 서로의 의견과 힘을 중도, 화합적으로 잘 통합하지 못하고 패거리사고와 나홀로사고와 행행하도록 방치하므로써 통한을 삼키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국 땅을 넘나들어야만 했던 처지와 그 처지를 짐사나마 잊고 사랑에 빠졌던 자신에게 충선왕은 연꽃을 준 것이리라.

요즘의 우리 사회에 패거리사고와 행행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덩굴지거나 가지치기 않는 연꽃의 사고가 소중한 때이다.

법현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그대의 남은 생명은 버린 뒤에도 살아나는가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앞 부분 생략) 해제는 해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선지식과 거량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서도 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한 무리의 도적 중에 진짜 도둑도 있고 좀도둑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칠 공부한 힘으로 어느 놈이 진짜 도둑이고, 어느 놈이 좀도둑인지를 가려내야 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칠 법만 죽내고 죄백만 달게 한 허물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大智如愚人莫測이라 收來放去亦非拘束다. 廻頭借問傍觀者하노니 棄汝殘生生活也無아. 큰 지혜는 바보 같아 헤아릴 이 없나니 거두고 놓는 일에 구애될 것 없도다. 고개 돌려 곁의 사람에게 물어보노니 그대의 남은 생명은 버린 뒤에도 살아나는가?

큰 웃음 한 소리에 하늘 땅이 깜짝 놀라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앞 부분 생략) 육조 스님은 전법제자 남악 회양을 보고, "네 밑에 말 새끼 한 마리 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다"고 예언하셨는데, 말 새끼는 바로 남악의 제자인 그 유명한 대선지식 마조도일(馬祖道一)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육조 스님은 왜 천하 사람을 구제한다든지 살린다는지 하지 않고 죽인다고 했을까? 대사이후(大死以後)라 대생(大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육단생명(肉團生命)이 털끝만치라도 남아 있다면 불생멸의 큰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중략) 孤輪獨照江山靜하니 大笑一聲天地驚이로다. 외로운 달이 홀로 강산을 비추는데 큰 웃음 한 소리에 하늘땅이 깜짝 놀라네.

조계종 사면 '안개속'

조계종의 사면 문제가 다시 안개 속으로 숨어들고 있다. 정화회의가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지난 1월 30일 상고했고, 총무원장 부존재 1심 재판에 져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3월 종회에서 종헌 개정, 초파일 이전 사면'이 불투명해졌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지난 1월 11일 새해사업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정화개혁회의에서 제기한 소송이 2월이면 모두 일단락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현재 중앙종회에 계류중인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면·복권 조치를 추진해 종단 화합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에서 소송을 계속하기로

날 가운데 백운은 공거래 함이로다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靑山本無表言說 大地亦無表言說 個中靑山浮虛空 個中白雲去來 靑山은 본래 언설로 나타낼 수 없으며 대지도 또한 언설로 나타낼 수 없음이로다. 날 가운데 청산은 허공중에 떠 있고 날 가운데 백운은 공거래(空去來) 함이로다.

흩어져 꽃 속에 드니 참으로 못 구별하겠네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지허 스님



(앞 부분 생략)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스님의 "없다"에 불두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다시 더 勇猛加勇猛하면 갑자기 마음 갈 곳이 없어 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화두 하나에 용광로가 되어 녹아버리면 그때 정안종사(正眼宗師)를 찾아 밟고 물으면 정로(正路)가 열립니다. 그 뒤로는 운거화상을 만나도 역대조사를 만나도 마치 물을 마시는 사람이 차고 더운을 저절로 알 듯 천하 사람을 만나도 시원하고 경쾌할 뿐입니다.

이것이 돈오돈수(頓悟頓修)의 간화참선법입니다. 천하에 대장부로 나서 이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 일이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중략) 臘雪滿空來 寒梅花正開 片片片片 散入眞不辨 선달 눈이 허공에서 가득 오니 차디찬 매화꽃 제대로 피었구나. 송이 송이 송이 송이 송이 흩어져 꽃 속에 드니 참으로 못 구별하겠네.

정화회의 상소따라 분위기 냉각

초파일 이전 '불투명' ... 분리사면 대두

의지를 가지고 종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분리 사면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종헌을 개정해 별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길을 터놓되, 사면 심사 과정에서 98, 99년 종단 사태에 관련돼 있으면서도 참회·자숙하지 않는 스님들을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스님은 "종단 사태에 관련되어 별면의 징계를 받은 스님 가운데 사면을 원하는 스님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사면 실시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도 "정화개혁회의에서 계속 상소하면 사면 실시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집행부에서 종회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성운 기자

초파일·신년만 발표 "건강과 관련없다"

조계종 해암종정 안거범어 왜 없나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이 이번 동안거 해제 때는 범어를 발표하지 않았다. 99년 4월 10대 종정으로 추대된 해암스님은 해인사 원당암 미소실에 주석하며 부처님오신날과 신년 범어는 물론 동안거와 하안거 결제 해제 때마다 범어를 발표해 납자들과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고 삶의 지표로 삼도록 했다.

이번 동안거 해제 범어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정예경실장 대오스님은 "올해부터는 안거 범어는 생략하고 부처님오신날과 신년 때만 범어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5대 총림의 방장스님들이 안거 범어를 발표하시는데, 굳이 종정스님께서 같은 성격의 범어를 낼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종정스님의 건강과 관련해 대오스님은 "지난 연말 한때 상당히 안 좋은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공양을 하실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령(81세)이고 기력이 쇠해져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면회도 사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양사 운문암에 주석하고 있는 고불총림 방장 서웅스님도 이번 동안거 해제 때 범어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불갑사 조실 수산스님이 범어를 내렸다.

정성운 기자

"통일토론회 실무협의 갖자"

종단협, 조불련에 명단·일정 통보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개최를 위한 남북 실무협의의 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31일 실무 회의를 갖자고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에 제안했다.

종단협의회는 8일 조불련에 팩스를 보내 실무 협의에 나설 남북대표단의 명단을 알리고, 협의의 일자를 3월 3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남북 대표단은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태고종 사회부장 일운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회정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 사무국장 법현스님 등 6명이다.

종단협의회는 이번 남북통일 토론회를 통해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개최에 대한 협의는 물론 남북불교인의 상호초청 등 이후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방안을 조불련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종단협의회는 또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 조불련의 참여도 제안하기로 했다. 조불련은 지난 1월 25일 종단협에 팩스를 보내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실무 협의를 위한 종단협의회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방북단 명단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백양사 주지 및 소임자 비위사실"이라는 제명의 괴문서에 대한 고불총림 백양사 문도회

성명서

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는 종단의 어른이신 서웅대종사께서 주석하시면서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 깊은 참사람 수행도량이다. 근래에 들어 조사선의 전통과 계승을 위한 '무차대회'와 '참사람 결사운동'등을 통하여 한국 전통선의 수승한 수행가풍을 이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방장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총림 운영위원회, 종무회의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행정과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정수행도량의 면모를 계승,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의 명의를 도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백양사 정화위원회)라는 유령의 익명으로 온갖 유치한 내용의 유인물이 각 사암에 유포되었다. 이에 지난 2월 2일 긴급 백양사 문도회와 고불총림 운영위원회, 본말사주지 연석회의를 갖고, 괴문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대책 위원회를 즉시 발족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한 결과 괴문서의 내용은 순전히 날조된 허위였으며 주지스님 이하 각소임자들에 대하여 추호의 근거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여 사실인양 전체적으로 교묘히 음해하는 중상모략이었다. 이에 본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괴문서를 작성하여 고불총림의 전통과 화합을 깨고 전체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려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는, 이같은 우매한 행위에 대해 전체 승가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대로 엄중 중징계함은 물론 사법처리도 불사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앞으로 문도회의, 고불총림 운영위원회 등의 공개적이고 정상적인 계통을 거치지 않고, 정당치 못한 익명의 문서로써 음해,중상모략하여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내용의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실체가 드러나는대로 의법조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번 괴문서처럼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구사실들이 마치 실제 사실처럼 잘못 각인되므로써 참사람 수행도량인 고불총림 백양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악영향이 끼쳐질 것임은 물론, 종단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염려하여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우리 고불총림 백양사문도 일동은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승가의 본분사에 매진하라는 채적으로 삼아, 방장큰스님을 중심으로 고불총림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한국불교계의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다하여 참사람운동을 통한 중생포교의 원력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이다.

불기 2545년 2월 6일

문도대표 (조계종 원로의원) 대책위원장 (조계종 원로의원)

수산운

백양사 문도회, 고불총림 운영위원회, 백양사 본말사 주지회 일동 합장